

국제
국제일반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뉴저지서 대규모 학술통회 개막

2015-07-17



【뉴욕=뉴시스】 노창현 특파원 = 미국 최대의 한국학교 연합체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총회장 최미영)가 뉴저지 티넥의 메리엇호텔에서 17일 연례 학술통회를 개막했다.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 33회 정기 총회 및 학술통회는 14개 지역협의회 소속 한국학교 교사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차세대교육'을 주제로 펼쳐진다. 이번 행사엔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와 청주고인쇄박물관이 함께 해 시선을 끌었다. 2015.07.17. <사진=Newsroh.com 제공>

美최대한국학교 연합체, 5000명 교사 4만명 학생 가르쳐

【뉴욕=뉴시스】 노창현 특파원 = 미국 최대의 한국학교 연합체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총회장 최미영)가 주최하는 연례 학술통회가 17일 뉴저지 티넥의 메리엇호텔에서 개막됐다.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 33회 정기 총회 및 학술통회는 14개 지역협의회 소속 한국학교 교사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차세대 교육'을 주제로 펼쳐진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미 전역에 1000여개 한국학교가 소속돼 있으며 5000여 명의 교사가 4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한국어는 물론, 한국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고 한국어 및 한국 역사·문화 교재를 출판 보급하고 있다.



【뉴욕=뉴스시스】노창현 특파원 = 미국 최대의 한국학교 연합체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총회장 최미영)가 뉴저지 티백의 메리엇호텔에서 17일 연례 학술 총회를 개막했다.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 33 회 정기 총회 및 학술대회는 14 개 지역협의회 소속 한국학교 교사 8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차세대교육'을 주제로 펼쳐진다. 이번 행사엔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와 청주고인쇄박물관이 함께 해 시선을 끌었다. 이날 행사엔 NAKS 창설의 단초를 마련한 미주한국학교의 산 증인 허병렬(89) 뉴욕한국학교 설립자가 함께 해 시선을 끌었다. 2015.07.17. <사진=Newsroh.com 제공> robin@newsis.com 2015-07-17

이날 행사엔 최미영 총회장과 장동구 이사장, 김정자 김인숙 이승민 부회장, 오정선미 사무총장 등 임원진은 물론, NAKS 창설의 단초를 마련한 미주한국학교의 산 증인 허병렬(89) 뉴욕한국학교 설립자가 함께 했다.

행사장 로비엔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와 청주시 고인쇄박물관 등이 부스를 만들어 홍보 전시할 동을 함께 해 시선을 끌었다.

현장에서 직지 인쇄 체험을 시연해 인기를 끈 청주고인쇄박물관의 박종선 주무관은 "재미 2 세들을 위한 교육 일선에 있는 한국학교 선생님들에게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직지를 대한민국 대표 문화 브랜드로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미국 최대의 한국학교 연합체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총회장 최미영)가 뉴저지 티백의 메리오토 호텔에서 17 일 연례 학술 총회를 개막했다. 2 박 3 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 33 회 정기 총회 및 학술대회는 14 개 지역협의회 소속 한국학교 교사 8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차세대교육'을 주제로 펼쳐진다. 이번 행사엔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와 청주고인쇄박물관이 함께 해 시선을 끌었다. 사진은 직지 홍보 및 인쇄 체험을 제공하는 고인쇄박물관 부스. 2015.07.17. <사진=Newsroh.com 제공> robin@newsis.com 2015-07-17

첫날 일정은 반크의 21 세기 신헤이그 특사단이 한국 바로 알리기 강연으로 시작됐다. 이정애 김보경 연구원이 진행한 특강은 반크의 탄생 배경과 활동 사항,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제국주의 과거사 대응, 올바른 한국 역사·문화 홍보 활동을 주제로 진행됐다.

반크는 총회 기간 중 참가 교장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지 등 한국의 세계적인 유산을 제대로 알리는 활동, 21 세기 통일 한국의 중요성을 미주 전역에 알리는 통일 공공외교 홍보 활동을 집중 소개하게 된다.

이어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원우 팀장이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적 고찰' 특강과 청주 고인쇄박물관의 황정하 박사가 '우리 문화의 우수성 :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 특강이 이어졌다.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미국 최대의 한국학교 연합체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총회장 최미영)가 뉴저지 티백의 메리엇호텔에서 17일 연례 학술 총회를 개막했다.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 33회 정기 총회 및 학술대회는 14개 지역협의회 소속 한국학교 교사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차세대교육'을 주제로 펼쳐진다. 이번 행사엔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와 청주고인쇄박물관이 함께 해 시선을 끌었다. 반크의 이정애(왼쪽) 김보경 연구원이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2015.07.17. <사진=Newsroh.com 제공> robin@newsis.com 2015-07-17

17일엔 오전 개막식 행사와 함께 하형록 회장의 기조강연이 있고 오후엔 '뮤지컬로 배우는 한국어'(송지은), '식민사관과 동북공정, 그리고 한국 고대사'(김현숙), '교장 세미나', '교수법의 이론과 실제' 등 21개의 특강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18일엔 반크의 박기태 단장이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재외동포의 할 일'을 주제로 전체 강연이 진행되고 '언어정체성 향상을 위한 한국학교 말하기 교육론'(지현숙) 등 21개의 특강이 이어진다.

한편 이번 총회 기간중 제 11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와 제 5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대회, 제 2회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대회가 함께 열린다.

robin@newsis.com [출처:2015_07_17 뉴시스]